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또 해 넘긴다

정읍·고창 등 전주화약일 채택에 거센 반발로 무산

'고부봉기일'·'무장기포일' 등 기념일 의견도 분분

13년째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문화관광체육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올해 6월 투표를 통해 '전주화약일'(全州和約日)인 6월 11일(양력)을 국가기념일로 잠정 결정했으나 동학혁명 발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학계의 반발로 선포는커녕 최종 결정도 미루고 있다.

특히 동학혁명 국가기념일을 둘러싼 지자체간 이견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내년에도 기념이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정읍시와 고창군 등에 따르면 동학혁명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문체부가 전주화약일을 기념일로 잠정 결정하자 정읍시와 고창군이 거세게 반발했다.

문체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최근 정읍 고부봉기일(2월 14일), 고창 무장기포일(4월 25일), 전주화약일(6월 11일), 우금치전투일(12월 5일)을 두고 투표를 벌여 동학혁명 국가기념일로 전주화약일을 채택했으며 최종 결정과 선포를 앞두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읍시의회는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주화약(全州和約)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국왕 상신 약속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시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 정읍지역 50여 개 시민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전주화약일은 농민군이 관군에 속아 희생만 치른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부적합하다"며 "고부봉기일과 황토현 전승일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무장기포일(4월 25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한 상태다.

고창군 무장면에서 전봉준 장군을 지도자로 삼아 농민들이 일으켰던 무장기포(茂長起包)는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인 민란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내닫는 시발점이 됐다는 게 고창군의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문체부에 국가기념일에 대한 지 의견을 다시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읍시와 고창군은 물론 인근 부안군이 주장하는 기념일도 제각각이어서 기념일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읍시는 고부봉기일(2월 14일)을, 고창군은 무장기포일(4월 25일)을 선호하고 있으며 각각 이를 동학혁명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최근 국회에 입법청원까지 했다.

또 인근 부안군의회는 백산대회일(5월 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문체부와 각 정당에 보냈다.

한편 전주화약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뒤 초토사 홍계훈이 폐정개혁안을 먼저 제시했고 전봉준이 전황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주화약은 동학농민군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청·일군의 출병에 의한 '주어진 강화'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고훈석기자 ghs@

무기계약직 채용 투명·공정성 높여

여수·곡성·화순 우수 기관 선정

여수시, 곡성군, 화순군이 전남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무기계약직 공표 시행 시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28일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공정한 채용을 통해 조직 및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여수시 등 3개 시·군에 도지사 기관표창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광주일보 2015년 5월7~6월9일자**)이 잇따르자 전남도는 올 초 시·군별 채용인원을 예측해 공표하고, 연말 실제 채용인원, 규정개정 여부 및 객관적인 채용절차 등을 종합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

3개 시·군은 공표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공개채용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을 기했으며, 채용과정에서도 서류전형은 물론, 실기시험, 면접과정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시·군의 인력운영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채용의 공정성에 흠이 있게 될 때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투명성이 요구된다"면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인력채용이 되도록 건전하고 예측가능한 인력관리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가 첫 시행한 '무기계약 공표제'로 인해 전남도는 물론 각 시·군이 인력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개 인력채용에 나설 수 있었다는 평가다.

연초 적정 필요인력을 책정·공표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속가능 교통도시 여수시 최우수 선정

여수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6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연구원장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4개 도시를 인구수 기준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지자체의 지속가능 교통체계 개선 노력 및 성과 등을 환경?사회?경제적 부문 12개 항목 32개 지표로 평가했다.

여수시는 ▲시가지교통체계 개선 ▲주차수요관리 ▲교통안전개선 ▲교통약자, 보행자, 자전거 관련 정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올해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선정,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우수상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인호 여수시 교통과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시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질서 확립 등을 통해 '행복교통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청정 수산물 경매 '북적'

강진군 마량면 강진군수협 위판장에서 중매인들이 제철을 맞은 굴과 감성돔 등 청정바다 강진만에서 잡아 올린 품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제야·해맞이 행사 취소

AI 확산 방지 총력

나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행사'와 '금성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방역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AI 발생이 잇따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

시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매년 '나주시 정수루 북두드림 제야행사'와 '금성산 해맞이 행사'를 열어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AI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루에서 갖던 제야행사와 금성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AI 조기 종식을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방역활동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전남도농업박물관, 한지 공예 특별전

내년 2월 말까지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지난 27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64일간 기획전시실에서 '전통 한지 공예의 아름다운 멋'이란 주제로 전통 한지 공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가구(지혜를 배우다) ▲장식·소품(멋을 알다) ▲빛(전등·아름다움에 취하다) 등 크게 3가지 부제로 구성됐다. 생활한지 공예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 작품은 미니서랍장, 연꽃 팔각상, 다도용 약장 등 보관함과, 모란, 해바라기, 튤립 모형을 이용한 전등 작품 등이다.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지를 활용한 손거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2회 운영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잊혀져가는 전통 공예품 전시를 통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대중화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전시회를 마련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나주시, 예·체·기능대회 장학금 수여

나주교육진흥재단, 241명에 1억3500만원

나주교육진흥재단(이사장 강인규)은 "최근 관내 예·체·기능대회 입상자 및 일반 저소득층 학생 총 241에게 1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최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강인규 시장 및 김판근 시의회의장,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예·체·기능대회 장학금은 전남대회와 전국대회에서 개인전은 최고 100만원을, 단체전은 최고 120만원씩 관내 초·중·고 96명이 총 4700만원을 받았다.

또 일반 장학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80만원씩 145명에게 88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나주교육진흥재단은 해마다 중·고·대학 우수신입생 및 중·고 우수재학생, 예·체·기능대회 장학생, 일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누계는 3447명에 36억1000여만원에 이른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종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협마트 현대아파트옆 매 22억

농 지 / 투 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온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답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바다 전망좋음 1억2천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좋은 남향땅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화순군 도곡면 드들강변 3694㎡ 전원주택 개발적합 5억1천5백

투자 · 매도 · 교환

- 북구 각화동 상업지 1121㎡ 병원 등 복합건물 적합 64억
- 대인동 상업지 580㎡ 오피스텔 사옥 생활주택 적합 13억
- 무안군 무안읍 디세대 원룸 부지 319평 은행 3억7천 매도 1억
-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6600만원
- 광산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장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남향·도로좋음 7억
- 영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건물 신축 적합 5억2천
- 강진군 옴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찰·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용 교환가능 5억
- 광산구 송정동 주거지 611㎡ 투자에 적합 2억천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도로여건 좋음 3억6500
- 북구 망월동 마을내 대지 430㎡ 시골생활도 가능 1억3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건너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옥, 광고제작 등 적합 3층건물임 매도 2억6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담바람
- 운림동 증심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화정동 대로변 대지 235㎡ 건물 293㎡ 상가신축용 7억천
- 모텔 중흥동 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 매도 6억7700

주 택

- 월산동 돌고개역에서 4분거리 리모델링된 2층주택 대지 144㎡ 건평 118㎡ 은행6천 주차장있고 생활여건 좋음 임대가능 1억8700
- 월산동 큰소방도로접 대지 175㎡(53평) 건평 80㎡ 1억5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제일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32평, 코너, **전망최고**
- 20층중 9층, **전체 리모델링**
- 사무실 전용
- 시세 - 1억 4000만원
- **급매 - 8000만원 (일시불)**
- **2017년 1월 10일까지**
- 보 500만원에 월55만원 임대가능
- 문의 H. 010-3605-5000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 · 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